



MERITZ

유통/화장품 Weekly

화장품 수출, 자세하게 뜯어보기

1. 금주의 이슈
2. 전주 동향
3. 금주 전망
4.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5. 주요 뉴스
6. 주요종목 Valuation
7.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8.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9.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10. 주간/월간 수익률
11. 주가 추이
12. 업종별 지수 추이
13. 소비 주요지표
14. 중국 소매판매
15. 유통업체 매출동향
16. 중국 인바운드 동향 점검
17. 면세점 동향
18. 화장품 수출 및 현황

1. 금주의 이슈

세그먼트별 화장품 수출 현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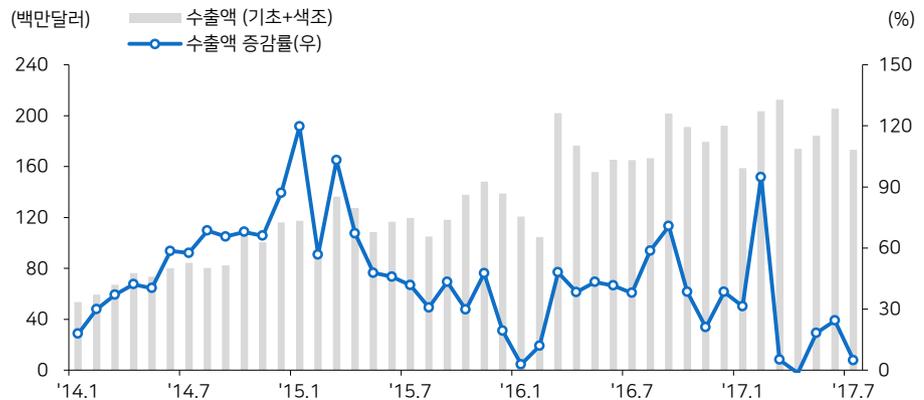
화장품 수출 데이터 둔화

- 1) 해외 현지법인 생산 증가 및
- 2) 세그먼트별 트렌드 변화 추정

2017년 7월 기초와 색조를 합한 전체 화장품 수출 성장률은 4.9% YoY로 크게 둔화됐다. 7월 중국향 수출액증감률은 20% YoY를 기록하여 사드 보복 조치의 타격이 컸던 상반기 대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했던 미국향 수출액증감률이 1.7%로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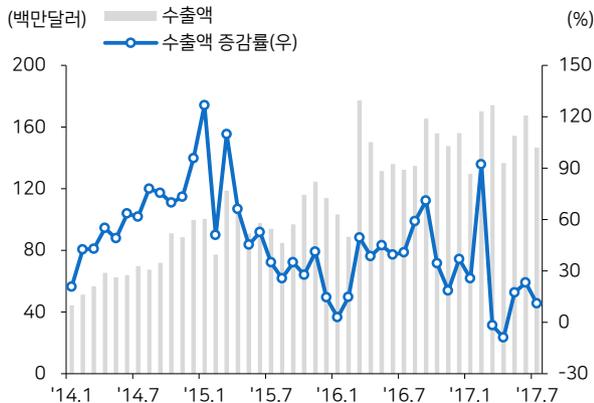
2016년 이후 전반적인 한국 화장품 수출액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화장품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과 홍콩으로의 통관 절차 강화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 및 색조, 그리고 마스크팩, 입술화장품, BB크림 등 세그먼트 별로 추세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세부 트렌드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1 전세계 기초+색조 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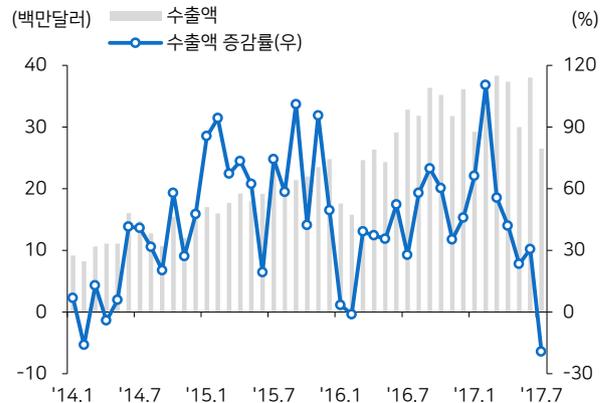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전세계 기초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전세계 색조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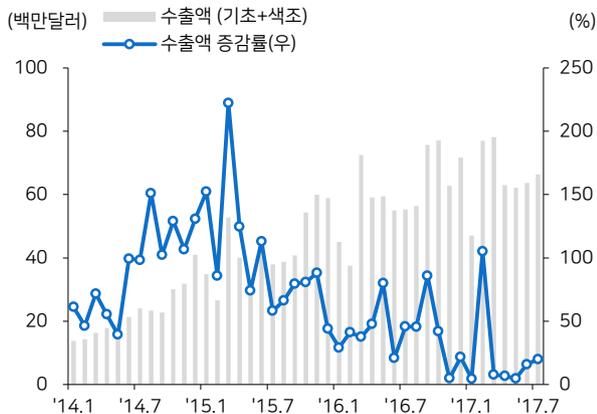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정부 통관절차 강화로 수출 증가율 둔화, 색조 모멘텀 약화에도 기초 성장률 회복

중국 및 홍콩향 수출액증감률은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통관절차 강화로 2017년 상반기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폭발적인 성장률을 나타냈던 색조 화장품의 모멘텀이 약화되었다. 2017년 6월과 7월 홍콩향 색조 화장품 수출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중국향 색조 화장품 수출액 또한 2017년 5월과 7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높은 기저 영향과 함께 중국 현지 생산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한편 기초 화장품의 수출액은 4월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7월 중국향 기초 화장품의 수출액은 +24.2% YoY를 기록했고, 홍콩향 마크스팩의 수출액은 +93.5% 대폭 증가했다.

그림4 중국 기초+색조 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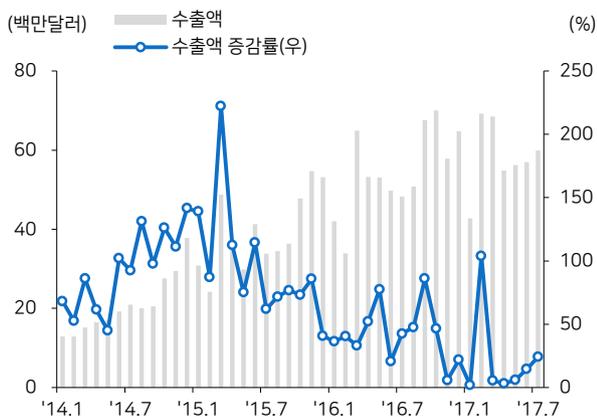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그림5 홍콩 기초+색조 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그림6 중국 기초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그림7 홍콩 마스크팩 수출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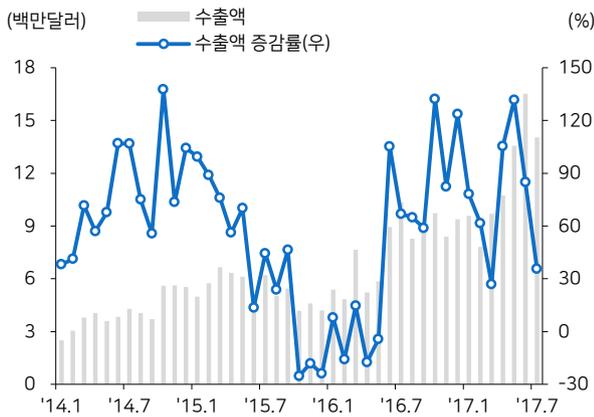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7월 미국향 수출액증감률 일시적 둔화, 마스크팩 및 BB 크림 및 파우더류 꾸준한 고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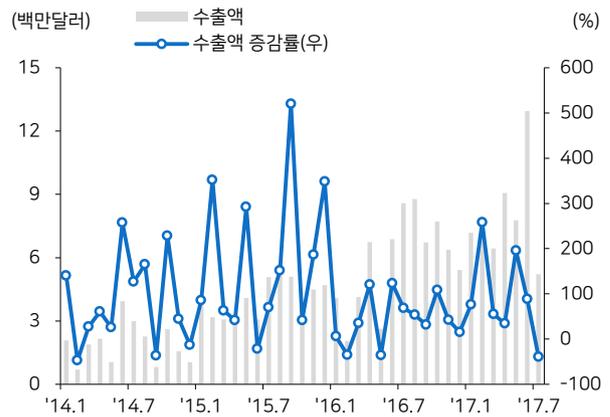
중국향 수출 성장률 둔화에도 2017년 상반기 미국향 수출 증가율은 84.3% YoY의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화장품 수출 내 미국 비중도 2016년 8.1%에서 2017년 상반기 10.4%까지 확대되었다. 7월 미국향 수출 증가율이 +1.7% YoY를 기록하였으며 기초는 +35.6%, 색조는 -39.2%로 일시적인 오더 기간의 차이 때문으로 추산되나 향후 추세는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카테고리 별로는 마스크팩 수출 증가율이 100%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BB크림 및 파우더류 또한 7월 +26.9% YoY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8 미국 기초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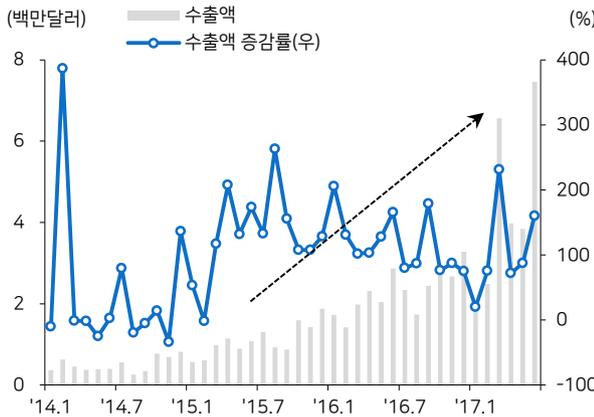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미국 색조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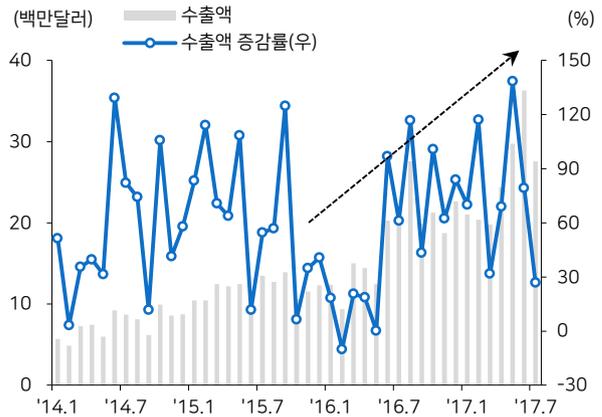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미국 마스크팩 수출액 및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미국 BB크림 및 기타 파우더 화장품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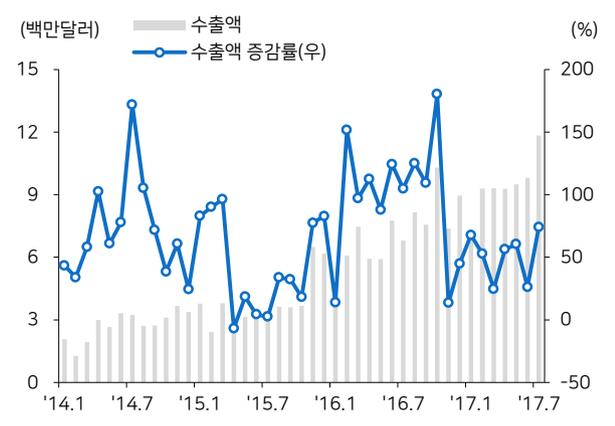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색조 수출 둔화 요인은 입술 화장품 영향으로 추산됨. 일본향 입술 화장품 증가는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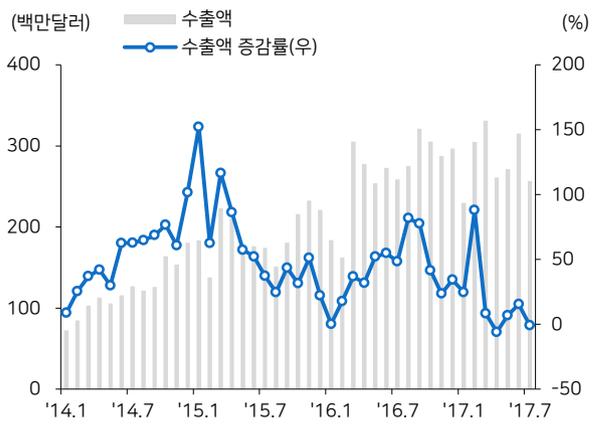
중국향 색조 화장품 수출액증감률 둔화 요인은 입술 화장품 영향으로 추산된다. 중국 여성들의 화장 단계가 정교해짐에 따라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색조 구매 경험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립 카테고리의 성장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러나 지난해 세 자릿 수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냈던 중국향 입술 화장품 증가율이 2017년 6월과 7월 마이너스 (-)로 전환되었다. 대신에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일본향 입술 화장품 수출액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다.

그림12 전세계 입술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전세계 BB크림 및 기타 파우더화장품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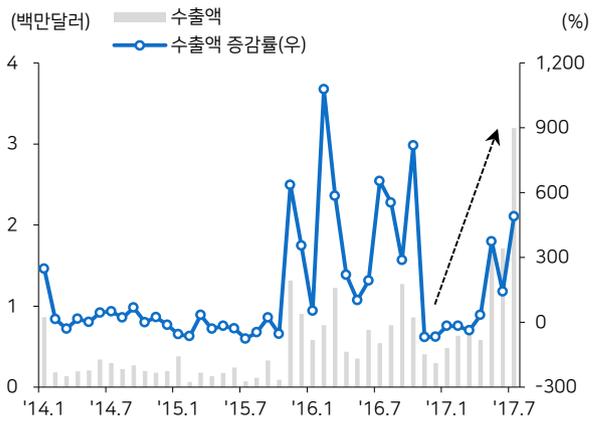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중국 입술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일본 입술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 전주 동향

유통

8월 셋째주 유통업종 주가는 전체 시장 대비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8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유통업종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왔던 홈쇼핑업체들 또한 2018년 공정위의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주가 하락하였음. 한편 롯데쇼핑이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4개사의 배당성향 30%까지 확대 발표와 함께 주가 반등하였으며 BGF리테일이 2분기 양호한 실적 달성 대비 주가 낙폭과대 메리트로 반등하였음

화장품 (생활소비재)

8월 셋째주 화장품업종 주가는 시장 대비 소폭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코스메카코리아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반등하였음. 반면 한국콜마는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하락하였음. 관계사인 콜마비엔에이치 (2Q 매출액 +63% YoY, 지배주주순이익 +133.1% YoY)와 한국콜마홀딩스 (2Q 매출액 +38.4% YoY, 영업이익 +64.2% YoY)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짐. 한편 7월 화장품 수출액은 중국의 회복 (+20%)에도 미국의 둔화 (+1.7%)로 전체 +4.9% YoY를 기록함

3. 금주 전망

유통: 내수 소비 회복 기대감 둔화 예상

상반기 소비자 심리지수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제 소매 판매 회복은 미미한 상황.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시행과 함께 살충제 달걀 및 폭우, 폭염에 따른 신선식품가격 급등 등 각종 이슈로 내수 소비 회복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온라인 쇼핑 확대와 공유경제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의 등장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소매 판매액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기존 유통 매커니즘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래 구조를 갖춘 신업체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Top-pick으로 온라인 비중 확대와 상품 경쟁력 강화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롯데하이마트를 유지함,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정부 규제 타격이 제한적인 홈쇼핑업체 대해 방어적 관점에서 관심 요망

화장품 (생활소비재): 중국 현지에서의 회복 속도 관건

사드 관련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관세 인하 및 로컬 면세점 육성으로 해외 소비보다는 자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중국 인바운드 소비 타격으로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내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다만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지난해 낮은 기저를 바탕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폭이 점차 완화된 수 있겠음. 한편 중국 현지에서는 기업별로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이후 중국 인바운드 타격을 중국 현지에서 점차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Top-pick으로 프레스티지 화장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LG생활건강을 유지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스맥스를 관심종목으로 제시함

4.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유통

관심종목

롯데하이마트 (071840):

생활가전 등 고마진 상품 비중 확대와 지난해 낮은 기저 바탕으로 3분기 양호한 실적 지속될 전망. 온라인 확대와 카테고리 다변화는 지속적인 기업가치 상승 요인. 모바일 유통 관련 제도 변화 시 점유율 확대 가능

CJ오쇼핑 (035760):

홈쇼핑 상품 신뢰도 회복에 따른 하반기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될 전망. 구조적인 TV홈쇼핑 채널의 둔화에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상품 경쟁력 강화 긍정적

종목 코멘트 (탐방)

GS홈쇼핑 (028150)

- 3Q 현황 점검: 홈쇼핑 비수기 시즌으로 의류 판매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높은 기저와 비우호적인 날씨로 2Q 대비 TV취급고 성장을 둔화 예상. 모바일은 온라인 전용상품 중심으로 10%대 성장 전망
- 2017년 송출수수료는 T커머스 관련 커버리지 확대 부담으로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가 예상됨
- 배당성향 30~40% 수준 유지 전망, 지난해 대비 대금결제조건 변경으로 운전자본 부담 1,000억원 정도 증가, 모바일 물류센터 신축으로 올해 Capex 1,000억원 수준 (경상투자 2~300억원 내외)이 예상됨
- 잉여현금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및 시기술 확보하기 위한 벤처회사 및 상품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투자 또한 지속될 전망

화장품 (생활소비재)

관심종목

LG생활건강 (051900):

중국 인바운드 소비 타격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될 전망. 프레스티지 화장품의 경쟁력 강화와 일본 등 지역 다변화, 그리고 생활용품과 음료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로 선방 예상

코스맥스 (192820):

하반기 국내법인 부진은 지속되었지만 추가적인 악화는 제한적일 전망. 중국 현지법인은 색조 시장의 높은 성장과 온라인 채널 고객사 확대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됨. 중장기 글로벌 진출 다변화 효과 기대

종목 코멘트 (실적발표)

코스메카코리아 (241710)

- 2Q 실적 연결기준 매출액 499억원 (+14.6% YoY), 영업이익 52억원 (+31.8% YoY) 기록하여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 531억원, 영업이익 49억원)을 충족하였음
- 부진한 화장품 업황 대비 실적 선방한 이유는 1) 상대적으로 국내 세수 브랜드샵 매출 비중이 낮고 2) BB, CC 및 톤업크림 등의 수출 +41.8% YoY)과 중국 현지법인 (+105.8% YoY) 호조 3) 코스맥스, 한국콜마 대비 규모의 차이에 따른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음
- 연간 가이드스 2017년 매출액 기준 20% 성장.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사드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은 소폭 둔화된 전망

5. 주요 뉴스

유통

입국장 면세점 '中日 등 경쟁국 설치 확대' vs '중소 시내 면세점 타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이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음.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지난 2003년 처음 논의된 후 여섯 차례나 추진됐으나 관세청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음. 인천공항공사 측은 중국·일본 등 경쟁 국가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이번 일곱 번째 논의에서도 관세청 등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세관감사 강화로 여행객 불편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 (서울경제, 8/14)

사드로 초토화 된 면세점... 1위 롯데마저 적자 전환: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2분기 29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늘어난 면세점 특허 수수료로 적자를 부채질. 특히 수수료는 작년까지 매출의 0.05%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영업장 매출에 따라 최대 1%까지 내야 함. 롯데는 올 상반기 100억원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연간으로 300억~400억원에 이를 전망. 작년보다 문을 연 신규 면세점은 모두 적자를 기록 (한국경제, 8/16)

현대백화점그룹 2300명 정규직 전환: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등 계열사 소속 비정규직 직원 23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힘. 계열사별로는 현대백화점이 고객 담당 업무와 사무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 14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현대홈쇼핑 등 다른 계열사에서 총 200여 명이 전환 예정.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파견 및 도급회사와의 계약 종료 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전환도 검토한다는 방침 (매일경제, 8/16)

몸집 줄이는 이마트, 4호점 부지도 매각: 이마트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부평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노후화된 초기 점포를 정리해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 이마트는 지난 6월 시흥 은계지구 부지 매각계약도 체결. 회사 관계자는 "내실경영을 통해 추가 확보된 자금은 이마트 기존 점포의 리뉴얼 등에 활용해 오프라인 대형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서울 가양점, 수원점, 대구 월배점, 안산 고잔점 등 대형점 리뉴얼을 완료해 일렉트로마트 등을 추가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함 (서울경제, 8/15)

편의점 커피, 절대강자 '레쓰비' 제쳤다: 편의점 자체 브랜드(PB) 커피가 업계 절대강자인 '레쓰비'를 꺾고 사상 처음으로 판매 순위 1위를 차지. CU는 아이스음료 매출 상승기인 7월 한 달간 커피 판매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CU의 파우치형 아이스커피인 '델라페 아메리카노 스위트'가 판매량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힘. 편의점 PB 커피의 선전에는 가성비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 실제 CU 내 캔·병커피의 매출 비중은 2015년 39%에서 2016년 36%, 2017년 33%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아이스커피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25%와 28%, 올해는 32%로 처음 30%대를 돌파 (매일경제, 8/14)

화장품 (생활소비재)

일본, 상반기 화장품 수출 신기록 달성... '일등공신'은 중화권 시장: 중국 화장품 전문매체 핀관왕(品观网)은 일본 정부의 최신 무역 데이터를 인용 "일본 화장품(헤어케어 제품 포함) 2017년 1~6월 수출액이 동기 대비 34.5% 증가하며 1,677억엔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 올해는 3,000억엔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보도. 일본 화장품의 해외 시장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지역은 아시아(90%). 홍콩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중국(24%), 한국(11%), 대만(10%) (코스인코리아, 8/16)

위기의 화장품 시장,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 주목: 중국의 사드보복 여파와 국내 내수시장 침체 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화장품 업계가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모습. 각 전문분야에서 성장성의 둔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새로운 품목으로 주력제품군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창업신문, 8/18)

롯데그룹 4개 계열사, 배당성향 두 배 이상 확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4개사는 앞으로 배당성향을 최근 2년 평균치(12~13%)의 두 배 이상인 30%까지 높이고 중간 배당도 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 소액주주 등의 반발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지주회사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 한편 국제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롯데그룹 4개사의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힘 (한국경제, 8/17)

'2분내 사물함에' 아마존 즉석수령 서비스, 대학 5곳서 첫선: 아마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료 회원인 '프라임'과 '프라임 스투던트' 고객을 대상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즉석 수령(Instant Pickup)'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날부터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버클리, 메릴랜드 주 컬리지파크 등 5곳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대학이 위주로 22곳으로 확대할 예정. 고객이 아마존으로 음료, 과자,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주문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직원이 아마존 전용 사물함으로 2분 이내 배송해주는 방식 (연합뉴스, 8/16)

냉장고 제쳤다...에어컨 '가전제왕' 첫 등극: 15일 롯데하이마트에 의뢰해 가전제품 판매량 순위(매출 기준)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1위는 에어컨이 차지. 최근 몇 년 간 폭염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에어컨이 필수 가전품목이 됨. 일부 히트 상품도 에어컨 매출 극대화를 견인.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과 LG전자의 인공지능 에어컨이 인기 (서울경제, 8/16)

GS홈쇼핑, 동남아 스타트업에 3000만달러 투자: GS홈쇼핑은 동남아시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메란티아세안성장펀드에 30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17일 발표. 메란티펀드는 말레이시아(마브캅)와 인도네시아(마하누사) 투자회사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2억달러 규모 신규 펀드. GS홈쇼핑은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미래 수익모델을 찾는 것으로 기대. 사업성 있는 벤처를 육성해 홈쇼핑과 협업하거나 인수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 GS홈쇼핑 관계자는 "GS홈쇼핑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 조인트벤처(JV) 형태로 진출해 있어 이들 벤처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한국경제, 8/17)

홈쇼핑업계, 1인 방송 마케팅 붐: 홈쇼핑이 1인 방송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음.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서나 볼 수 있던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기용해 방송을 제작하는 등 TV 채널에서 벗어나 모바일에 최적화된 마케팅에 돌입. 신세계티비쇼핑은 1인 방송을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고 16일 밝힘. 롯데홈쇼핑은 7세 유튜브 스타로 유명한 박막례 할머니가 출연하는 '막례씨'를 진행하고 있으며 CJ오쇼핑은 지난 3월 뷰티 전문 프로그램인 '아는 언니 뷰티쇼'를 업계 최초로 인스타그램에서 생중계. 홈쇼핑 업계가 1인 크리에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모바일 쇼핑의 발달로 1인 제작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 (매일경제, 8/16)

올리브영 PB제품, 미국 아마존서 판다: 올리브영은 아마존에 라운드어라운드와 보타닉힐보 온라인스토어를 열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발표. 두 브랜드는 아마존 프라임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음. 프라임 판매제품은 아마존이 물류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유료회원인 프라임 회원에게 더 빨리 배송. 올리브영은 PB를 적극 육성해 해외에 진출할 계획.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를 해외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테스트베드로 삼겠다고 회사 측은 설명 (한국경제, 8/17)

뉴트리바이오텍, 구미제품 제조라인 구축...홈플러스·블랙모어스 등 공급: 뉴트리바이오텍은 한국 이천공장에 제조라인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기존 정제, 캡슐, 분말 등의 제품 외에 연간 1억9000여 개의 구미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6일 밝힘. 회사 측은 구미 제형은 건강증진 효과에 따라 먹는 재미까지 더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객사들의 수요를 반영했다고 설명 (이투데이, 8/16)

6. 주요종목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PER(X)		PBR(X)		ROE(%)		
					2017C	2018C	2017C	2018C	2017C	2018C	
유통	롯데쇼핑	A023530	267,500	8,424	34.0	20.6	0.5	0.5	1.6	2.5	
	현대백화점	A069960	95,500	2,235	7.3	7.3	0.5	0.5	8.0	7.4	
	신세계	A004170	198,000	1,949	11.3	10.9	0.6	0.5	5.0	5.4	
	CJ오쇼핑	A035760	214,600	1,334	11.2	10.2	1.7	1.4	16.5	15.6	
	GS홈쇼핑	A028150	222,100	1,458	13.7	10.7	1.3	1.2	11.0	12.2	
	현대홈쇼핑	A057050	137,000	1,644	12.0	11.3	1.0	0.9	9.0	8.9	
	엔에스쇼핑	A138250	16,850	568	11.2	10.1	1.2	1.2	12.7	11.9	
	이마트	A139480	232,000	6,467	15.4	13.2	0.8	0.8	5.3	5.9	
	GS리테일	A007070	41,100	3,165	19.1	15.9	1.5	1.4	8.2	9.5	
	BGF리테일	A027410	90,300	4,474	20.8	18.5	4.1	3.5	21.1	20.0	
	롯데하이마트	A071840	65,100	1,537	10.0	9.0	0.8	0.7	7.8	8.1	
	호텔신라	A008770	62,200	2,441	107.3	29.6	3.5	3.2	3.5	11.8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A090430	280,000	16,368	38.9	28.7	4.5	4.0	12.2	14.9	
	아모레G	A002790	125,500	10,349	43.4	32.3	3.4	3.1	8.5	10.4	
	LG생활건강	A051900	977,000	15,259	27.0	24.3	5.4	4.5	23.1	21.7	
	코스맥스	A192820	117,000	1,176	38.8	23.1	5.1	4.4	13.6	20.2	
	한국콜마	A161890	68,900	1,454	25.5	20.7	4.5	3.8	19.3	20.3	
	코스메카코리아	A241710	66,500	355	21.9	16.5	2.9	2.5	14.3	16.7	
	연우	A115960	25,850	320	24.7	17.1	1.7	1.5	6.3	8.7	
	대봉엘에스	A078140	10,050	111	10.3	9.2	1.7	1.5	13.9	13.6	
	SK바이오랜드	A052260	16,200	243	19.1	17.0	1.7	1.6	9.4	9.8	
	클리오	A237880	34,400	583	31.1	24.0	4.3	3.9	14.0	17.3	
	에이블씨엔씨	A078520	21,850	369	19.6	16.7	1.7	1.6	9.2	10.1	
	토니모리	A214420	15,750	278	36.1	25.3	2.1	2.0	6.0	8.4	
	생활소비재	코웨이	A021240	97,900	7,325	20.9	18.3	5.8	5.2	29.9	30.2
		쿠쿠전자	A192400	127,000	1,245	15.7	13.6	1.7	1.5	13.5	14.4
뉴트리바이오텍		A222040	20,700	427	29.7	19.1	4.4	3.7	17.2	18.5	
콜마비엔에이치		A200130	24,050	711	20.2	19.6	4.5	3.6	24.8	20.8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7.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각국통화)	시가총액 (백만달러)	PER(X)		PBR(X)		ROE(%)	
					2017C	2018C	2017C	2018C	2017C	2018C
유통	월마트	WMT US	79	239,080	18.1	17.1	3.2	3.2	17.0	18.7
	이베이	EBAY US	35	37,226	17.1	15.6	2.2	2.0	19.1	18.5
	세븐 & 아이홀딩스	3382 JP	4,382	35,490	20.3	17.7	1.6	1.5	8.0	8.6
	노드스트롬	JWN US	44	7,361	14.8	14.6	8.4	8.1	57.2	56.7
화장품	로레알	OR FP	175	115,397	26.0	24.6	4.2	3.5	14.8	14.7
	에스티로더	EL US	106	38,961	27.8	24.9	10.2	11.1	40.9	59.7
	시세이도	4911 JP	4,520	16,519	56.7	43.0	4.3	4.0	7.9	9.6
	상해자화	600315 CH	31	3,176	51.3	38.4	3.8	3.5	7.4	9.2
생활소비재	LVMH	MC FP	218	129,673	22.6	20.4	3.8	3.5	17.4	17.8
	나이키	NKE US	55	90,195	22.6	19.5	7.2	6.0	31.6	34.4
	패스트리테일링	9983 JP	31,350	30,383	28.4	26.7	5.0	4.4	19.0	17.6
	조지루시	7965 JP	1,154	765	13.0	13.8	1.3	1.2	9.9	8.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8.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롯데쇼핑	3.5	(6.8)	(2.2)	12.2	32.1	20.8	1.8	(4.0)	(5.3)	(1.2)	17.4	4.4
	현대백화점	(2.6)	(11.6)	(12.8)	1.1	(23.6)	(12.4)	(4.2)	(8.8)	(15.9)	(12.3)	(38.3)	(28.8)
	신세계	(2.9)	(14.1)	(13.7)	8.8	6.5	12.5	(4.6)	(11.3)	(16.9)	(4.6)	(8.3)	(3.9)
	CJ오쇼핑	(1.6)	13.4	11.5	15.2	33.6	31.7	(3.3)	16.2	8.4	1.8	18.9	15.4
	GS홈쇼핑	(5.0)	(1.4)	8.0	7.9	38.7	29.1	(6.7)	1.4	4.9	(5.4)	24.0	12.8
	현대홈쇼핑	(7.1)	3.4	6.2	23.4	11.8	22.9	(8.8)	6.2	3.1	10.1	(2.9)	6.5
	엔에스쇼핑	0.0	(0.9)	1.8	5.3	(1.8)	9.8	(1.7)	1.9	(1.3)	(8.0)	(16.5)	(6.6)
	이마트	(4.1)	(2.5)	2.0	12.1	45.0	26.8	(5.8)	0.3	(1.2)	(1.3)	30.3	10.4
	GS리테일	(2.0)	(11.7)	(26.6)	(21.1)	(16.5)	(13.7)	(3.7)	(8.9)	(29.7)	(34.5)	(31.2)	(30.0)
	BGF리테일	4.9	(3.7)	(27.8)	(10.2)	(15.3)	10.4	3.2	(0.9)	(30.9)	(23.5)	(30.0)	(6.0)
	롯데하이마트	0.9	(4.8)	5.9	40.8	40.9	54.3	(0.7)	(2.0)	2.7	27.4	26.2	37.9
	호텔신라	1.0	5.1	1.3	31.2	(0.2)	29.2	(0.7)	7.9	(1.8)	17.9	(14.9)	12.8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0.0	(5.4)	(21.1)	(3.0)	(27.1)	(12.9)	(1.7)	(2.6)	(24.3)	(16.3)	(41.8)	(29.3)
	아모레G	2.0	(1.6)	(17.7)	0.4	(14.3)	(5.6)	0.4	1.2	(20.8)	(13.0)	(29.1)	(22.0)
	LG생활건강	0.1	3.4	(0.1)	14.9	4.2	14.0	(1.6)	6.2	(3.2)	1.6	(10.6)	(2.4)
	코스맥스	0.4	9.9	(12.4)	(16.1)	(17.8)	(2.1)	(1.2)	12.7	(15.5)	(29.5)	(32.6)	(18.5)
	한국콜마	(4.4)	(3.1)	(22.6)	(8.6)	(24.0)	4.7	(6.1)	(0.3)	(25.7)	(22.0)	(38.7)	(11.7)
	코스메카코리아	9.7	5.9	(10.9)	(0.6)	N/A	18.8	8.1	8.7	(14.0)	(14.0)	(14.7)	2.4
	연우	(3.0)	(9.6)	(27.3)	(18.5)	(40.6)	(32.9)	(4.7)	(6.8)	(30.4)	(31.8)	(55.3)	(49.3)
	대봉엘에스	4.4	(6.1)	(21.8)	(19.0)	(27.7)	(15.2)	2.7	(3.3)	(24.9)	(32.3)	(42.4)	(31.6)
	SK바이오랜드	3.9	(3.6)	(13.6)	(3.9)	(23.8)	(9.8)	2.2	(0.8)	(16.7)	(17.2)	(38.5)	(26.1)
	클리오	3.9	2.7	(15.6)	(2.8)	N/A	12.4	2.3	5.5	(18.7)	(16.2)	(14.7)	(4.0)
	에이블씨엔씨	(1.6)	(6.2)	(25.6)	0.7	(3.4)	5.6	(3.3)	(3.4)	(28.7)	(12.7)	(18.1)	(10.8)
	토니모리	(3.4)	(16.9)	(32.0)	(28.7)	(52.6)	(30.8)	(5.0)	(14.1)	(35.1)	(42.1)	(67.3)	(47.2)
생활소비재	코웨이	(1.6)	(4.0)	(2.6)	11.1	14.4	10.9	(3.3)	(1.2)	(5.7)	(2.2)	(0.4)	(5.5)
	쿠쿠전자	(7.6)	(13.6)	(15.1)	(8.3)	(13.6)	(1.6)	(9.3)	(10.8)	(18.2)	(21.7)	(28.4)	(17.9)
	뉴트리바이오텍	(0.5)	1.2	(5.5)	(30.1)	(32.7)	(32.7)	(2.2)	4.0	(8.6)	(43.4)	(47.4)	(49.1)
	콜마비엔에이치	4.1	24.0	3.0	35.1	(24.8)	29.7	2.4	26.8	(0.1)	21.8	(39.6)	13.3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9.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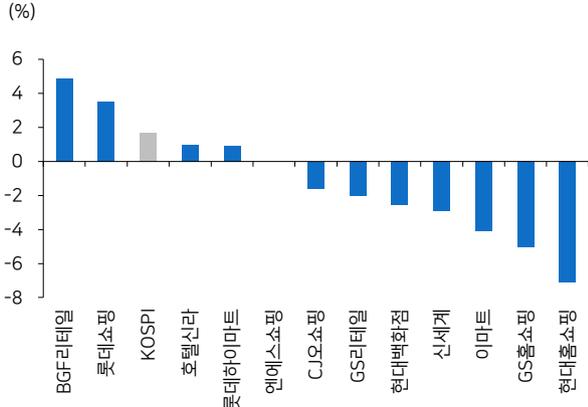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월마트	(1.4)	4.3	0.7	14.3	8.9	14.7	(0.7)	6.2	(1.2)	11.8	(2.1)	6.4
	이베이	(0.8)	(6.5)	2.8	3.0	13.5	17.1	(0.1)	(4.6)	1.0	0.5	2.5	8.8
	세븐 & 아이홀딩스	(1.9)	(1.5)	(8.2)	(0.4)	(0.6)	(1.6)	(0.6)	1.6	(7.6)	(0.9)	(18.3)	(3.5)
	노드스트롬	(1.3)	(5.9)	8.7	(3.0)	(15.8)	(7.5)	(0.6)	(4.0)	6.9	(5.5)	(26.9)	(15.9)
화장품	로레알	1.0	(5.0)	(6.3)	1.6	2.2	1.2	(0.0)	(4.9)	(2.3)	(3.0)	(14.1)	(4.0)
	에스티로더	6.3	9.1	14.7	24.6	15.5	38.5	6.9	11.0	12.8	22.1	4.4	30.1
	시세이도	2.3	13.8	28.0	57.3	76.4	52.8	3.6	17.0	28.7	56.9	58.7	50.9
	상해자화	5.4	1.5	7.0	11.2	7.0	16.0	3.5	0.6	1.2	10.7	1.8	10.7
생활소비재	LVMH	1.5	(2.1)	(5.0)	15.7	38.6	20.0	0.5	(2.0)	(1.0)	11.1	22.4	14.8
	나이키	(6.8)	(7.0)	6.1	(3.2)	(6.7)	8.1	(6.2)	(5.1)	4.3	(5.7)	(17.8)	(0.2)
	패스트리테일링	(3.5)	(6.4)	(16.2)	(10.4)	(15.6)	(25.1)	(2.2)	(3.3)	(15.5)	(10.9)	(33.3)	(26.9)
	조지루시	(0.6)	3.0	(16.0)	(21.0)	(27.2)	(26.4)	0.7	6.2	(15.3)	(21.5)	(44.9)	(28.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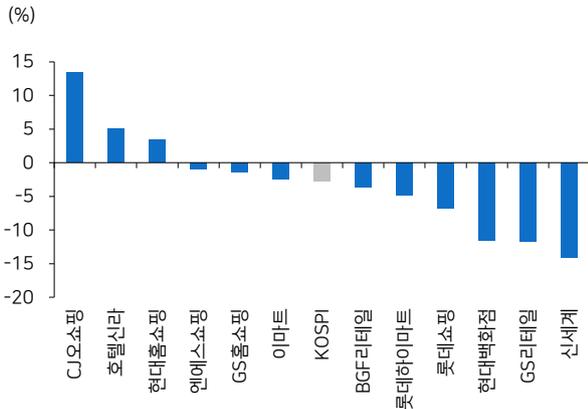
10. 주간/월간 수익률

유통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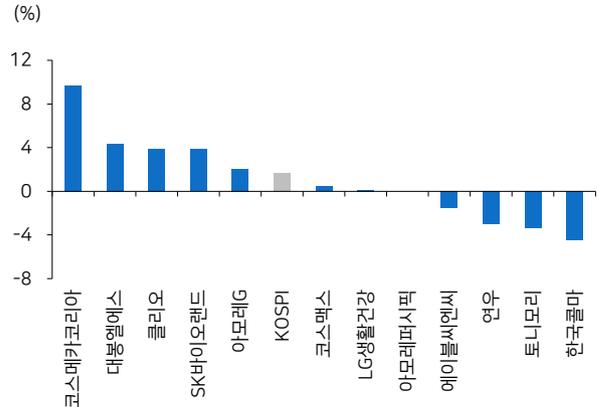
월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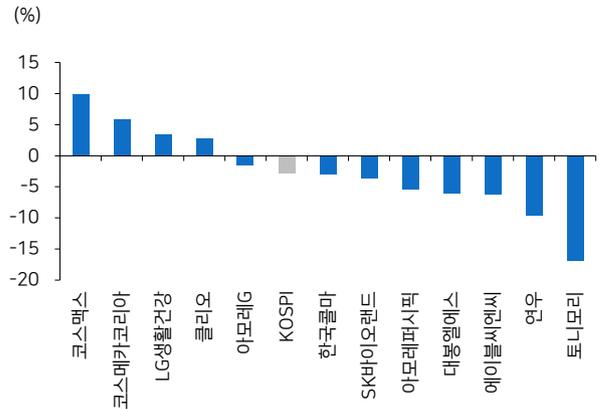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생활소비재)

주간 수익률



월간 수익률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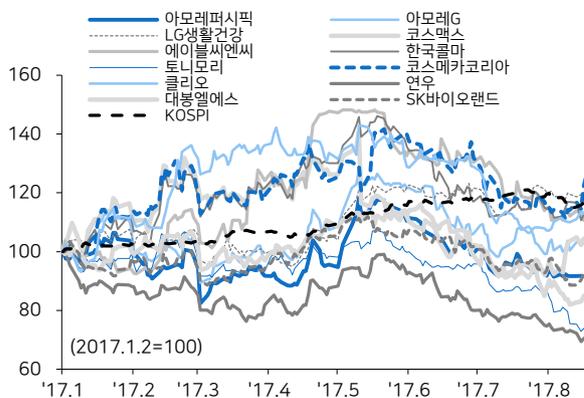
11. 주가 추이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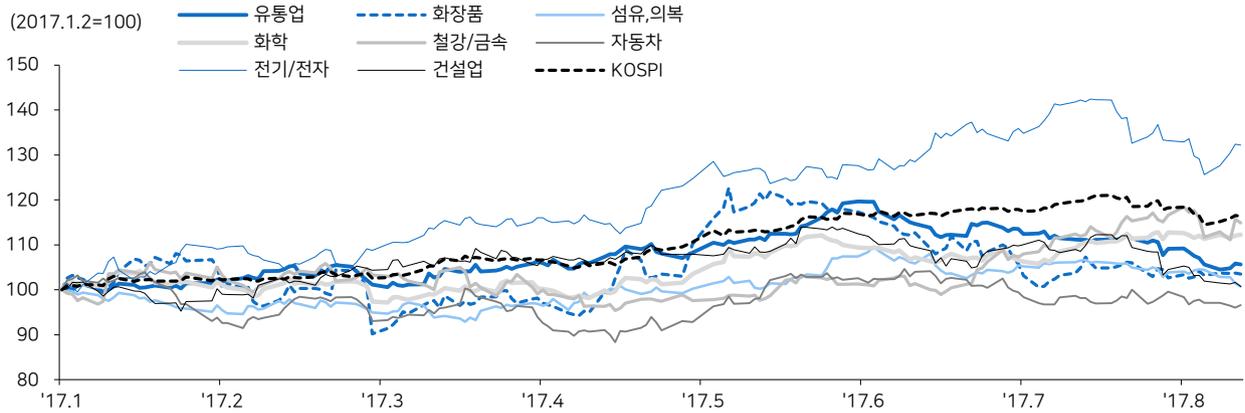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12. 업종별 지수 추이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13. 소비 주요지표

Monthly	'16.6	'16.7	'16.8	'16.9	'16.10	'16.11	'16.12	'17.1	'17.2	'17.3	'17.4	'17.5	'17.6	'17.7
소비지출전망 CSI	105	106	106	107	107	106	103	104	104	104	106	106	109	108
가계수입전망 CSI	98	100	100	100	101	98	98	98	97	98	99	102	103	103
소비심리지수	98.8	100.9	101.8	101.7	101.9	95.8	94.2	93.3	94.4	96.7	101.2	108.0	111.1	111.2
소비자물가지수(% YoY)	0.7	0.4	0.5	1.3	1.5	1.5	1.3	2.0	1.9	2.2	1.9	2.0	1.9	2.2
가계대출 증감률(% YoY)	12.3	12.0	12.0	11.8	11.4	11.5	10.8	10.4	10.4	10.0	9.8	9.7	9.5	9.5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YoY)	14.0	13.6	13.4	13.1	12.6	12.4	11.7	11.2	11.1	10.6	10.2	10.0	9.8	9.4
WTI (\$/B)	48.3	41.6	44.7	48.2	46.9	49.4	53.7	52.8	54.0	50.6	49.3	48.3	46.0	50.2
KOSPI (pt)	1,970.4	2,016.2	2,034.7	2,043.6	2,008.2	1,983.5	2,026.5	2,067.6	2,091.6	2,160.2	2,205.4	2,347.4	2,391.8	2,402.7
원/달러	1,151.8	1,120.2	1,114.8	1,101.1	1,143.8	1,169.0	1,205.8	1,161.3	1,130.3	1,118.5	1,137.7	1,195.7	1,144.1	1,119.3
원/위안	173.3	168.8	166.9	165.0	168.8	169.7	173.6	168.7	164.3	162.4	165.0	164.2	168.7	166.4
기준금리 (%)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소매판매액 증감률 (% YoY)	8.8	4.1	5.3	2.1	4.2	4.2	3.6	7.1	2.7	4.1	4.3	2.9	2.5	
내구재	15.0	1.6	6.6	-1.6	1.9	1.7	-1.1	2.4	9.4	2.1	5.8	6.1	1.1	
승용차	20.2	-10.5	-5.3	-9.4	-1.8	2.3	-6.3	3.5	11.4	-0.2	-0.9	-2.4	-7.1	
가전제품	20.9	20.1	24.1	13.8	5.2	-1.6	2.5	0.1	4.7	8.0	18.3	29.2	15.3	
통신기기 및 컴퓨터	-0.5	2.3	9.0	-3.4	2.6	0.9	1.5	0.3	2.3	-1.0	8.1	2.8	1.9	
가구	1.2	0.9	8.0	11.0	12.5	10.0	11.1	5.1	16.1	6.0	2.2	1.4	3.1	
준내구재	14.7	8.9	3.3	3.6	3.6	1.9	1.2	0.3	0.3	-1.4	0.4	-4.0	-0.9	
의복	16.4	7.5	-0.8	1.6	3.4	1.2	1.2	-1.2	-0.5	-2.5	1.1	-4.3	-1.3	
신발 및 가방	23.3	16.9	10.2	9.0	6.4	-2.0	-0.3	4.0	4.3	-1.0	-4.9	-6.4	0.9	
오락, 취미, 경비용품	2.9	2.3	-0.1	0.7	-1.0	2.4	-2.2	-1.3	-4.0	-0.9	2.5	-4.5	-0.1	
비내구재	2.8	3.5	5.4	3.2	5.8	6.8	7.6	12.3	0.6	7.9	5.5	4.6	4.7	
음식료품	3.4	4.9	7.8	3.9	8.6	7.6	9.0	17.1	-10.1	7.7	4.8	3.8	7.6	
의약품	6.4	4.3	5.9	7.4	4.6	6.5	4.8	0.5	2.1	1.1	2.8	3.9	4.4	
화장품	22.1	29.6	26.4	17.2	14.2	15.1	17.2	11.9	16.1	5.0	-1.2	1.4	8.2	
서적, 문구	6.5	6.5	7.2	5.9	6.4	6.4	4.1	-1.9	-0.3	-1.3	-0.9	2.3	-1.8	
차량연료	-5.1	-7.5	-4.1	-6.3	-1.1	3.0	4.2	11.3	14.5	13.6	9.7	8.7	-3.4	

주: WTI, KOSPI, 환율은 월말 종가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Bloomberg,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Quarterly	1Q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4Q16	1Q17
민간소비 증감률(% YoY)	0.8	(0.1)	1.1	1.4	(0.1)	0.8	0.6	0.2	0.4
도시근로자 소득 증감률(% YoY)	1.4	2.0	0.3	(0.5)	0.9	0.9	0.6	0.2	0.7
도시근로자 소비지출 증감률(% YoY)	0.6	(1.9)	(1.6)	(0.5)	(0.6)	0.6	0.7	(2.2)	
가계신용잔액 증감률(% YoY)	7.4	9.2	10.3	10.9	11.4	11.1	11.3	11.6	11.1
가계대출 증감률(% YoY)	7.7	9.6	10.3	11.0	11.5	11.2	11.5	11.6	11.1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YoY)	11.3	8.1	7.8	6.6	6.0	10.4	10.6	11.2	10.5
판매신용 증감률(% YoY)	3.2	3.5	10.5	8.2	10.5	10.8	7.0	11.6	12.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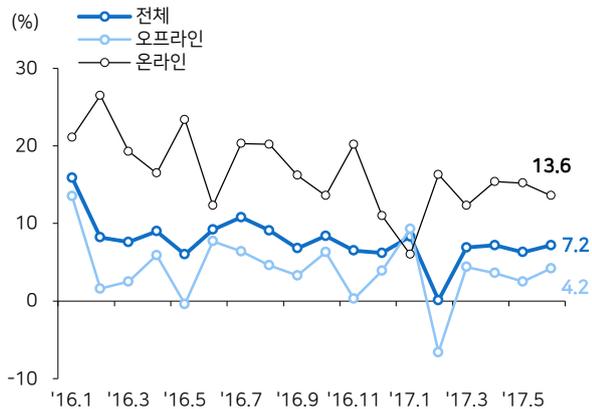
14. 중국 소매판매

(% YoY)	2016년											2017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소매판매	10.5	10.1	10.0	10.6	10.2	10.6	10.7	10.0	10.8	10.9	9.5	10.9	10.7	10.7	11.0	10.4
일정규모이상	8.6	6.7	6.5	8.1	7.3	8.5	8.8	7.5	9.5	9.8	6.8	10.0	9.2	9.2	10.2	8.6
음식료	11.7	12.1	11.1	11.9	10.5	10.5	10.2	8.8	9.1	9.1	9.6	12.5	12.1	13.8	10.6	10.3
섬유의복	4.4	7.3	5.9	7.5	9.4	6.2	6.7	7.5	5.1	7.1	6.1	6.4	10.0	8.0	7.3	6.4
화장품	9.2	7.6	5.9	7.9	9.0	5.8	7.7	4.0	8.1	11.0	10.6	8.7	7.7	12.9	17.0	12.7
귀금속	-9.3	5.0	-2.0	1.2	-1.1	-6.3	5.0	2.5	2.7	4.8	8.2	7.2	7.5	9.6	6.3	2.6
일용품	12.2	12.7	12.8	11.7	10.4	10.0	12.5	9.5	10.7	13.9	9.2	7.1	8.0	8.7	11.2	7.1
스포츠, 레저	16.8	19.7	12.9	19.7	5.2	5.1	7.1	9.4	24.8	13.9	19.5	12.8	8.6	11.4	29.1	26.6
서적	15.4	4.8	9.3	3.3	7.4	7.7	8.7	6.6	12.8	9.5	11.5	11.1	4.8	0.1	12.3	-3.0
가전제품	6.0	9.1	0.7	12.3	11.5	7.1	8.6	7.6	14.7	9.5	5.6	12.4	10.2	13.6	13.3	13.1
중의약	19.8	9.9	14.4	10.5	7.3	13.9	12.0	11.6	11.5	9.1	9.9	12.1	12.6	14.0	13.6	13.0
사무용품	3.8	13.0	8.0	11.3	7.3	13.6	10.4	12.7	15.4	15.3	13.4	17.2	3.8	5.0	16.4	10.8
가구	15.9	17.1	15.1	13.4	13.6	11.1	8.7	11.0	8.8	9.9	11.8	13.8	13.9	13.5	14.8	12.4
통신	16.5	12.5	9.4	12.1	11.6	10.1	5.1	3.8	17.8	8.0	10.7	11.6	6.1	1.9	18.5	7.9
석유제품	0.3	-3.8	-4.5	-0.5	-2.1	2.7	2.9	4.7	5.7	7.1	14	11.3	12.1	9.1	4.2	5.6
건축재	15.6	17.3	16.8	14.2	15.0	16.3	14.2	12.3	11.0	10.2	12.9	17.8	13.4	11.0	15.2	13.1
자동차	12.3	5.1	8.6	9.5	9.2	13.1	13.1	8.7	13.1	14.4	-1.0	8.6	6.8	7.0	9.8	8.1
기타	4.1	5.3	5.6	2.6	1.0	0.6	-0.3	2.6	0.0	-0.7	6.9	6.0	4.7	4.2	7.9	5.0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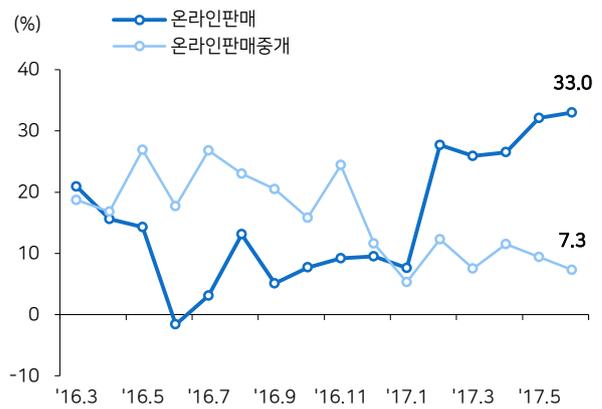
15. 유통업체 매출동향

전체 매출동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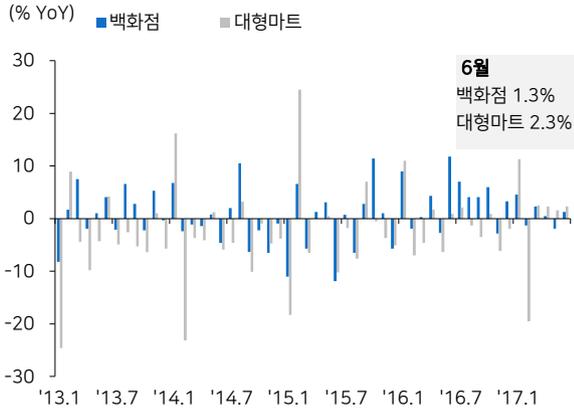
온라인 매출동향



주: 온라인판매증가 -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온라인판매 - 이마트, 신세계,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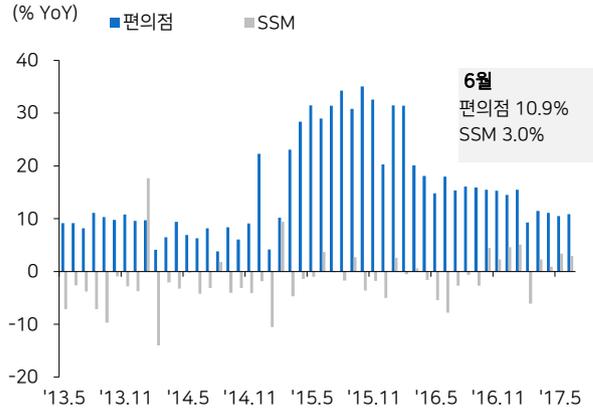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월별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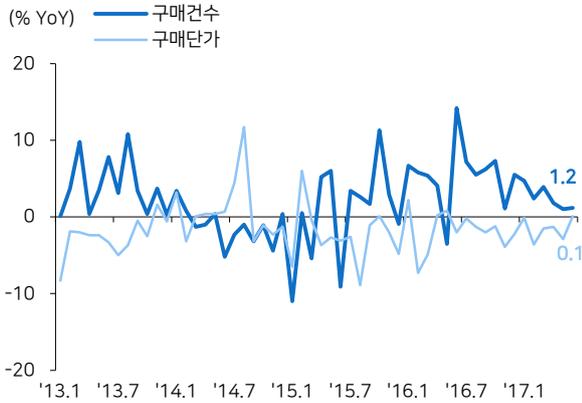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편의점 및 SSM 월별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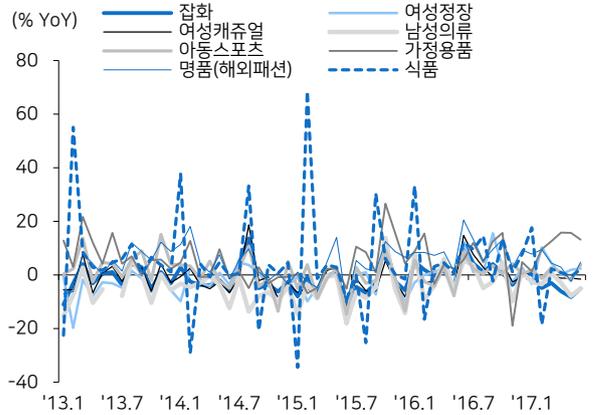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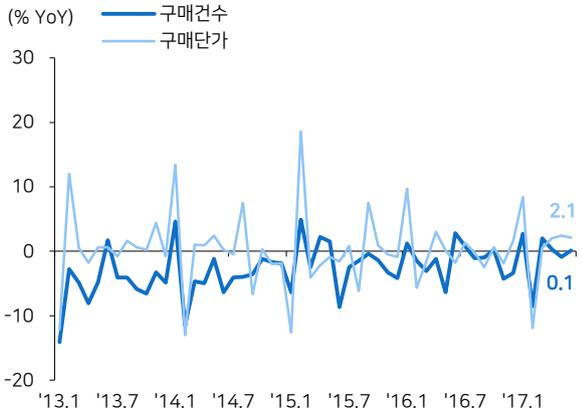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품목별 매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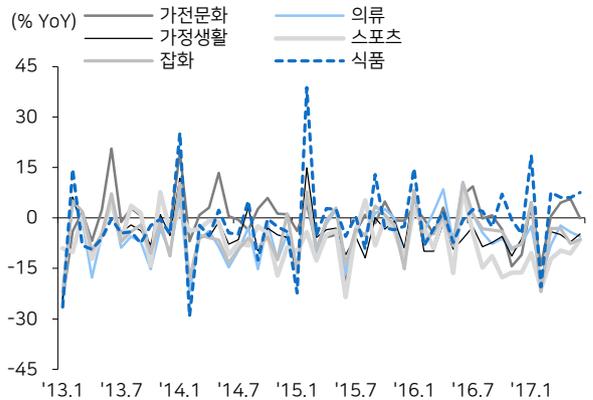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대형마트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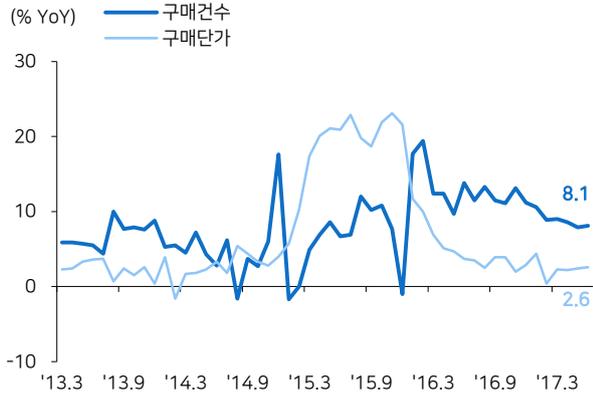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대형마트 품목별 매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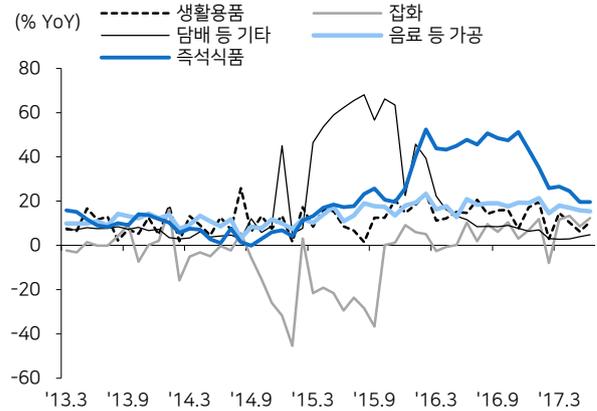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편의점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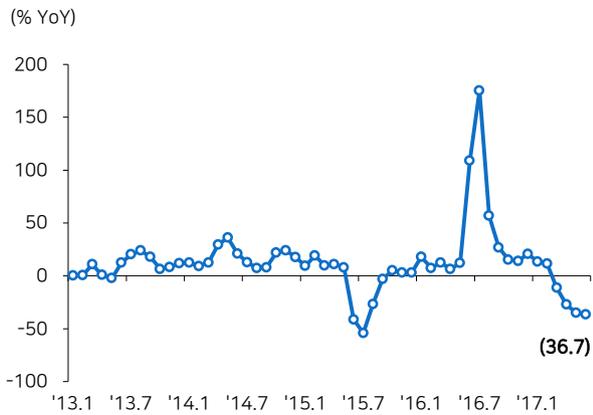
편의점 품목별 매출 성장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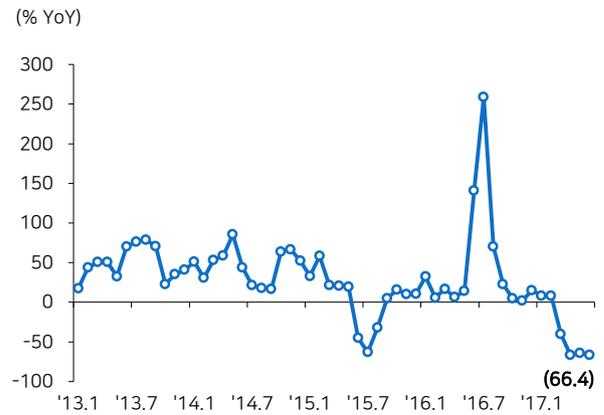
16. 중국 인비온드 동향 점검

한국에 입국하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 6월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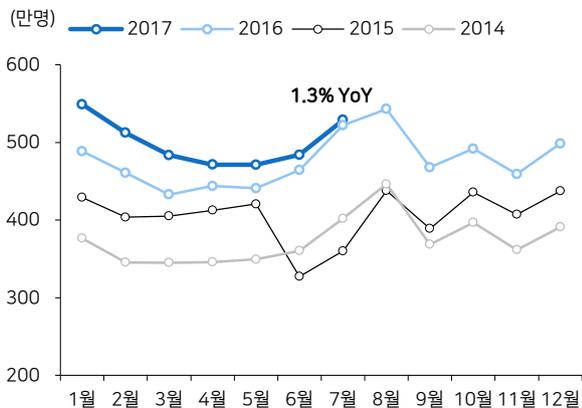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 추이: 6월 -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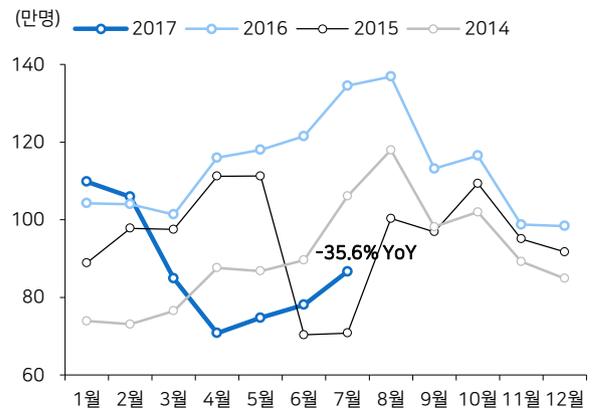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인천공항 국제선 합산 여객 수송 월별 추이: 7월 +1.3% YoY



자료: 인천공항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인천공항 국제선 중국 여객 수송 월별 추이: 7월 -35.6% YoY



자료: 인천공항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17. 면세점 동향

(천명, 천달러, %)	내국인				외국인				합계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2015년 09월	1,918		198,197		1,298		428,676		3,217		626,873	
2015년 10월	2,217		237,277		1,527		536,616		3,744		773,893	
2015년 11월	2,197		235,316		1,403		511,651		3,601		746,967	
2015년 12월	2,238		239,745		1,437		525,394		3,675		765,139	
2016년 01월	2,423		236,752		1,525		517,385		3,948		754,137	
2016년 02월	2,217		211,662		1,491		490,268		3,708		701,930	
2016년 03월	2,089		212,725		1,610		609,963		3,699		822,688	
2016년 04월	2,220		241,886		1,831		633,957		4,051		875,843	
2016년 05월	2,237		245,607		1,844		625,903		4,081		871,510	
2016년 06월	2,315		245,118		1,842		624,564		4,156		869,682	
2016년 07월	2,413		267,849		1,917		637,508		4,330		905,357	
2016년 08월	2,558		285,522		1,900		682,417		4,459		967,939	
2016년 09월	2,449	27.7	277,106	39.8	1,711	31.8	666,473	55.5	4,160	29.3	943,579	50.5
2016년 10월	2,420	9.2	267,841	12.9	1,846	20.9	728,971	35.8	4,266	14.0	996,812	28.8
2016년 11월	2,312	5.2	251,214	6.8	1,519	8.3	666,382	30.2	3,832	6.4	917,596	22.8
2016년 12월	2,272	1.5	247,595	3.3	1,595	11.0	733,931	39.7	3,867	5.2	981,526	28.3
2017년 01월	2,509	3.6	260,718	10.1	1,682	10.3	708,392	36.9	4,191	6.2	969,110	28.5
2017년 02월	2,485	12.1	257,709	21.8	1,633	9.5	882,538	80.0	4,118	11.1	1,140,247	62.4
2017년 03월	2,534	21.3	267,001	25.5	1,235	-23.3	664,945	9.0	3,768	1.9	931,945	13.3
2017년 04월	2,705	21.9	299,059	23.6	998	-45.5	590,151	-6.9	3,704	-8.6	889,210	1.5
2017년 05월	2,579	15.3	280,167	14.1	1,024	-44.5	655,899	4.8	3,603	-11.7	936,066	7.4
2017년 06월	2,628	13.6	277,425	13.2	1,064	-42.2	688,568	10.2	3,693	-11.2	965,993	11.1
2009	12,853		1,441,700		8,410		1,592,700		21,263		3,034,400	
2010	15,255	18.7	2,167,500	50.3	8,178	-2.8	1,749,700	9.9	23,433	10.2	3,917,200	29.1
2011	16,427	7.7	2,416,800	11.5	9,872	20.7	2,445,900	39.8	26,299	12.2	4,862,700	24.1
2012	16,834	2.5	2,367,800	-2.0	12,002	21.6	3,240,100	32.5	28,836	9.6	5,607,900	15.3
2013	17,146	1.9	2,342,900	-1.1	12,437	3.6	3,897,600	20.3	29,583	2.6	6,240,500	11.3
2014	18,557	8.2	2,451,800	4.6	15,766	26.8	5,451,400	39.9	34,323	16.0	7,903,200	26.6
2015	24,587	32.5	2,725,700	11.2	16,081	2.0	5,416,900	-0.6	40,668	18.5	8,142,600	3.0
2016	27,925	13.6	2,990,877	9.7	20,632	28.3	7,617,723	40.6	48,556	19.4	10,608,600	30.3

자료: 한국면세점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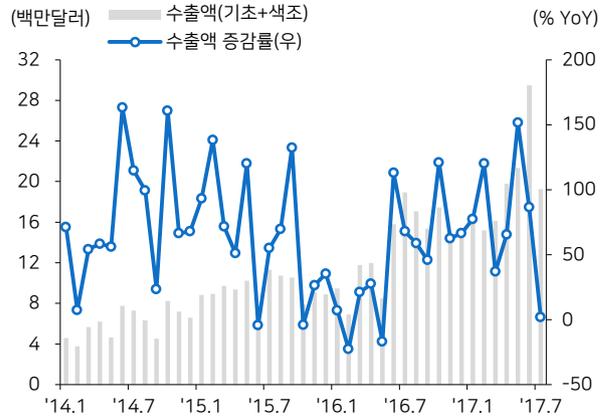
18. 화장품 수출 및 현황

화장품 전체 수출액 및 증가율 -7월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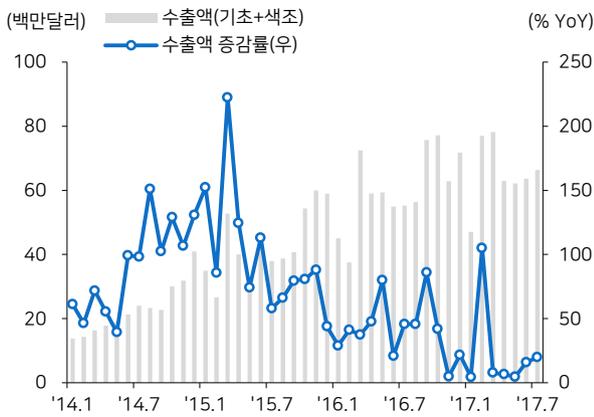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미국향 수출액 및 증가율 -7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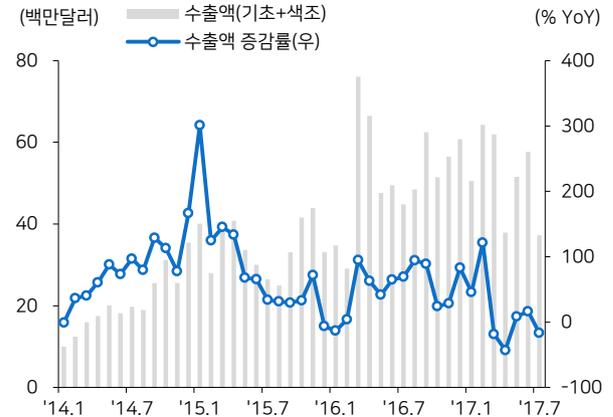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중국향 수출액 및 증가율 -7월 20.0%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홍콩향 수출액 및 증가율 -7월 -16.9%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8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8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지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증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2.8%
중립	7.2%
매도	0.0%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